

노동정책연구
2011. 제11권 제3호 pp.81~107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

조선주*

본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공헌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존하는 측정되어지지 않는 노동력을 가시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 연령, 교육연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37,801 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 예산의 약 21%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 용어 : 여성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I. 서론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공공재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 욕구로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한다면

논문접수일: 2011년 5월 19일, 심사의뢰일: 2011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1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jcho@kwidimail.re.kr)

정부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욕구의 일부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충족될 때 정부재정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손원익 외, 2008).

이러한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비영리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민간 기부(민간의 금전 기부)라면, 비영리 조직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민간의 자원봉사활동(민간의 용역 기부)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시간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자원봉사활동(*philanthropy, volunteering, giving of time*)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해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박태규, 2004). 또한 자원활동·자원봉사활동, 자선적 기여행위(*charitable contribution*)는 경제학적 틀 안에서 분석될 수 있다.²⁾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 자원봉사활동 문화의 발전과 성숙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사회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수치가 적지 않다. 또한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이다(조선주, 2009).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높은 감성지수와 능동적인 자세를 여성들의 강점으로 인지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축제로 여기고 있으며(여성신문, 2009), 2008년 한국인(이강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회장으로 뽑혔다.³⁾ 아울러 200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당시 한국자원봉사활동의 노력의 결실로 볼

2) Sugden(1984)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재원은 ‘소비자 부담의 방법’, 즉 교환을 통한 자원의 이동과 ‘소비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 그리고 ‘자발적인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이렇게 세 가지로 충당되며, 이 중 자발적인 기여, 즉 자선이나 기부 행위는 엄연한 경제적 현상이므로 당연히 경제학적 분석 대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3) IAVE는 전세계 100여 개국의 1천여 개 개인과 단체 회원이 가입한 단체로서 설립 40년 이래 아시아권에서 대표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에 따르면,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원봉사 신흥강국이라고 하였다.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및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정부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문화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조사와 연구들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소의 미흡함과 미진함을 가졌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도 민간·지역 단위 자원봉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등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이 전세계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와 막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노력 또한 미미하다. 특히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여성이 많은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한 구성의 규모를 공식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즉 현존하는 노동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부분의 실제 노동력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경제적 가치 및 활동의 효과를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 정책 형성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부분 여성들의 노동력을 평가절하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았다(조선주 외,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에서의 논의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해당 논의를 넘어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수행 시 이에 대한 가치 추정은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즉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형성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II. 선행 연구의 검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요인 및 인정이나 보상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태홍 외(2005)는 시장임금을 전 직종의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는 기회비용법을 채택하여 자원봉사활동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 추정을 위해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2004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자원봉사자 수를 계산하고, 노동부의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해 구한 시간당 임금을 시장임금으로 활용하였다. 추정 결과 20세 이상 협의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18,325억 원으로 이는 2004년 우리나라 GDP(7,784,446억 원)의 0.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분석하였다. 성별로 남성은 6,390억 원, 여성은 9,699억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423억 원 많았다. 협의의 자원봉사활동 노동에서는 남성이 1일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은 여성보다 길었으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행위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강현 외(2008) 연구에서는 성인 자원봉사활동 인구수와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추정치는 각각 737만 4,405명, 1.73시간으로 연간 총 자원봉사활동 시간 수는 약 6억 6,519만 시간으로 추정되어 2005년에 비해 1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원봉사자의 총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전 산업 시간당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7조 3,896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중에는 특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기혼여성 특히 전업주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혼여성이라는 사회적·제도적 입장이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누군가를 돕는 이타주의적 동기와 함께 고립된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보고, 사회와 자신의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적인 동기로서의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오명복, 2002). 이러한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향은 취업을 고려하여 사회활동을 미리 체험해 보거나 자신이 배운 기능이나 기술을 활용하려는 방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가사와 자녀양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일수록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내재된 욕구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이면에 은폐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보살핌, 보호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성 고정 관념에 의한 성역할 분업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 가사노동과 함께 여성의 무보수 이중노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성 노동의 평가절하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Kaminer(1984)는 젠더적 관점에서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출발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이 여성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는 이러한 질문에 여성에게 자원봉사활동은 늘 양날의 칼로서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McRae(1995) 또한 중년기 여성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은 노년기의 자기 지속감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확대는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자본을 늘리는 데 기여하며, 자녀교육과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상반된 시각으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사노동과 유사한 단순반복 노동집약적인 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부정적인 관점도 존재하고 있다(오명복, 2002). 여성 자원봉사활동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사회로 확대하여 성편의적인 노동 개념을 고착화시키고 여성들의 노동을 무보수의 순환노동으로 전환시켜 사회적 평가절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현상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의 참여율⁴⁾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조선주, 2009). 또한 고학력의 여성이 많

은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의 뜻과 역량을 펼치는 공간으로 NGO를 선택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영역에서 여성의 활약은 정부 영역이나 기업 영역에서보다 훨씬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문정 외, 2002).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여성들이 주로 주체가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여성들의 주요 사회참여활동으로 분류되어 여성 정책의 일부로 정책의 대상이 될 만큼 주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기 및 영향을 주는 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Brown, 2008; 조선주, 2009).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성개념 고착화 및 무보수 노동의 평가절하 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논의를 넘어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형성의 기반 제시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Ⅲ.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논의

1.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논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용어는 자발, 자주,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voluntas)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손길과 시간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4) 이강현 외(2008)의 「2008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 중 여성은 13.3%, 남성은 10.5%가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녀별 자원봉사 참여 실태를 분석한 김태홍 외(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이라고 하였다.

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동’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은 ‘민간 차원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무상 이전에 관련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정의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단일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인정과 보상의 문제, 사회적 책임성의 문제 그리고 자발성과 강제성의 문제들 때문이다. 이 모든 측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자원봉사활동이란 “특정한 사회적 요구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무보수로, 또한 기본적 의무감에 메이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할 것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인 지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mith, 1981).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무보수성이란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행한 서비스에 상응하지 않는 어떤 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변상(금전 또는 기타)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된 자신의 비용이나 활동을 준비하거나 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변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박종삼, 2005: 475).

한편,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제3조의 1). 또한 동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및 비정파성과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의 1).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이타적 동기나 혹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민적 참여라는 순수한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 데 비해 국가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가적 행사 및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의미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박종삼, 2005; 조선주, 2009).⁵⁾

5) ILO의 자원봉사 측정 매뉴얼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다음의 다양한 이유로 정의하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중요하다(조선주, 2009). 그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동기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사회 및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리 범주화될 수 있는데 남을 돕기 위해, 친구나 동료의 요청으로, 내가 받은 혜택의 사회 환원, 자기 개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등, 매우 다양한 동기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경제학적인 분석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때 실증적 증거에 대한 해석은 어떤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모형은 공공재 모형과 사적 소비재 모형이다⁶⁾. 이 두 모형의 차이점은 자선적 기여(자원봉사활동)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나에 달려 있는데, 연구자들은 종종 더 현실적인 관심을 보이기 위해 이 두 모형의 동기를 혼합한 형태의 모형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유엔(UN)은 2001년도에 회원국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지식기반을 강화’하고 그 공헌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유엔총회, 2001), 유엔 통계국은 국가 회계시스템 내 국가가 생산한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부가 회계에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추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발런티어 혹은 발런티어링)란 용어가 전세계에 걸쳐 널리 이해된 것은 아니며, ‘강요된’ 자원봉사가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부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사회에서는 돕는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의 뚜렷한 형태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자원봉사가 일반적으로 무보수로 이뤄지는 활동이라 여겨지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사비 혹은 적당한 현금경비 지원 같은 일종의 보조가 있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무보수로 제공하는 보조는 자원봉사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 심지어 ‘직계가족’의 정의가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 6) 첫째는 주로 초기 문헌들에서 논의된 것으로 공공재 가정하에 자선적 기여 행위를 설명하는 공공재 모형(public goods model)이고, 둘째는 공공재의 가정을 포기하고 자선적 기여 행위 자체에서도 효용이 발생한다는 사적 소비 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이다. 셋째는 공공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선적 기여 행위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동기들을 고려한 공공재 공급과 사적 소비가 혼합된 모형(mixed public-private goods model)이다 (Andreoni, 1998; Duncan, 1999 등).

는 논의를 시작하였다(ILO). 먼저 자원봉사활동은 광범한 영역이며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자원봉사활동의 공헌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노동력 통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자 본인과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많이 공헌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나 규모, 분배에 대한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형성의 기반을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측정의 의의와 중요성

앞 절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측정의 의의에 대해 논하였다. 본절에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 가치 측정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모든 영역에 있어 여성이 자원봉사활동가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하는 무보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이타주의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이타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직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요구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중요한 동기로 지적되고 있었다(조선주 외, 2009). 사회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을 자신의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와 더불어 ‘돌봄’에 대한 여성 특유의 경험과 익숙함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저해 요인으로는 가족 내에서의 지지와 인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의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기관이나 사회에서의 인정과 지지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선주

외, 2009). 실제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원체계가 미진한 것이며, 지원체계 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매우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한 구성의 규모를 가시화하고, 현존하는 노동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부분의 실제 노동력의 의의와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부분 여성들의 노동을 평가절하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논의를 넘어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부 지원의 확대, 축소 등과 관련된 정책을 논할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증가 및 중요성과 함께 본 연구에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의 발생, 가시화되지 않은 많은 노동력 통계의 축적, 수많은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신뢰와 존경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관련 정책이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⁷⁾

IV.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사)볼런티어 21의 「2008년 한국인의 자

7) 이때 이러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비교가능성, 실행가능성, 비용유효성, 효율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ILO, 2009).

원봉사활동 및 기부 현황」의 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 자원봉사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정부 정책 입안 및 집행자, 전문가, 실무자를 비롯하여 언론 및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생산하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자료에 일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관한 항목이 있으나 5년에 한 번씩 조사되므로 급변하는 추세를 분석하기에는 조사주기가 너무 길며, 자원봉사활동만을 위해 설계된 조사가 아니므로 관련 분석을 하기에는 변수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상기 자료를 사용하였다.⁸⁾ 본 실증분석에서는 해당 자료가 패널 자료가 아닌 횡단 자료이며, 해당 연도마다 설문 문항이 조금씩 다르므로 가장 최근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⁹⁾

사용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여성은 1,011명, 남성은 978명이다. 거주 지역의 크기는 광역 대도시에 사는 응답자가 여성 48.3%, 남성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소도시(40.6%, 42.5%)였으며, 읍과 면에 사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하여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규모가 큰 광역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응답자 1,011명 중 461명이 전업주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즉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주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성은 978명 중 판매직이 244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영업(14.2%), 일반작업·생

8) 본 자료는 자원봉사활동의 일반적인 특성, 자원봉사활동의 경험과 동기, 자원봉사활동 영역과 인정 보상의 측면에서 조사한 자료이며, 1999년부터 매 3년마다 (사)볼런티어 21이 행정안전부 등의 지원을 받아 조사하는 전국 실태자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료다. 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은 인구비례확률추출법의 원리에 따른 다단계 층화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지역별 층화로 전국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표본오차는 $\pm 2.2\%p$ (95% 신뢰수준)으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1대1 개별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본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은 각 연도 자료에 대해 현황과 특성을 기술통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며, 자원봉사와 기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조선주(2006), 손원익 외(2008), 박태규(2008) 등의 연구가 있다.

9) 1999년에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2년에는 행정자치부와 UNDP(유엔개발계획)의 지원으로 1999년에 비하여 국제적 통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상기 자료는 패널 자료가 아니며, 해당 연도마다 설문 조사의 문항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수의 일관성 담보 및 결과의 강건성 담보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표 1〉 사용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

		여 성	남 성
거주지역	광역 대도시	488(48.3)	461(47.1)
	중소도시	410(40.6)	416(42.5)
	읍	31(3.1)	29(3.0)
	면	82(8.1)	72(7.4)
	전 체	1,011(100)	978(100)
연령	20대	193(19.1)	197(20.1)
	30대	228(22.6)	233(23.8)
	40대	224(22.2)	236(24.1)
	50대	156(15.4)	157(16.1)
	60대 이상	210(20.8)	155(15.8)
	전 체	1,011(100)	978(100)
직업	전문/자유직	13(1.3)	22(2.2)
	관리직	34(3.4)	19(1.9)
	사무직	80(7.9)	62(6.3)
	자영업	124(12.3)	139(14.2)
	판매/서비스직	170(16.8)	244(24.9)
	농어민	32(3.2)	80(8.2)
	전업주부	461(45.6)	42(4.3)
	학생	47(4.6)	81(8.3)
	기능/숙련공	0(0.0)	0(0.0)
	일반작업·생산직	17(1.7)	131(13.4)
	미취업	33(3.3)	93(9.5)
	전 체	1011(100)	978(100)
	학력	중졸 이하	253(25.0)
고졸		438(43.3)	391(40.0)
대재 이상		320(31.7)	458(46.8)
전 체		1,011(100)	978(100)
혼인상태	미혼	169(16.7)	265(27.1)
	기혼	842(83.3)	713(72.9)
	전 체	1,011(100)	978(10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5(8.4)	60(6.1)
	100만~199만원	195(19.3)	177(18.1)
	200만~299만원	242(23.9)	263(26.9)
	300만~399만원	254(25.1)	227(23.2)
	400만~499만원	120(11.9)	126(12.9)
	500만원 이상	84(8.3)	83(8.4)
	1,000만원 이상	2(0.2)	13(1.3)
	모름/무응답	29(2.9)	29(3.0)
	전 체	1,011(100)	978(100)

산직(13.4%)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 관리직이 19명(1.9%)으로 가장 적었다. 직업을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을 하는 남성도 42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전체 응답자 1,989명 중 가장 많은 41.7%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대재 이상(39.1%), 중졸 이하(19.2%)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은 고졸 응답자가 43.3%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대재 이상이 46.8%로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가 7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83.8%)가 남성(78.2%)보다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가구의 소득분포는 전체의 약 절반이 200만~399만 원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었고, 최저 99만 원 이하가 7.3%, 최고 1,000만 원 이상이 2.9%를 차지하였다. 여성이 응답한 가구소득은 300만~399만 원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응답한 가구소득은 200만~299만 원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26.9%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설명

가.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 모형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형에서 출발하였다. 개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노동공급은 잘 알려진 것처럼 개인의 효용극대화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의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식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기부의 동기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함수(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하였다. 이때 효용함수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기준으로 언급한 혼합모형을 이용하였다. 개인의 기부, 자원봉사활동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순수 공공재이지만 개인들은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기부, 자원봉사활

동 자체에서도 효용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기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상정한다. 그리고 기부의 기회비용은 개인이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소득을 벌 수 있느냐와 유사한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에 의존한다(Freeman, 1997). 즉 이러한 개인의 효용극대화 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Max. } u_i = u_i(x_i, w' h_i, l) \quad (1)$$

$$\text{s.t. } x + (1-t)wh + (1-t)wl = (1-t)wH$$

where, t : 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공제세율

w : 시장임금

H : 시간의 초기부존량

여기서 x_i 는 소비재(consumption goods)이며, $w'h$ 는 자원봉사의 가치라 한다. 여기서 w' 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인의 시간당 임금(자원봉사활동의 귀속임금(imputed wage)이다)이며, h 는 자원봉사시간이다. l 은 여가시간으로 $24 - h^{10}$ 이다. t 는 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공제세율인데, 본 실증분석에서는 t 는 공제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¹¹⁾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H 는 총 가용시간(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여기서 개인들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주부, 학생, 교육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무직)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그룹을 구별지을 수 있는 것을 w (시간당 임금)로 보았다(Andreoni, 1988; 1989 참조).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개인의 자원봉사 시간은 개인의 임금, 직업, 교육연수, 연령 등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와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유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함수는 축약모델 식 (1)을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관한 선택식으로 변형시키면 된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따른 잠재적인 효용(latent utility)은 시간당 임금, 금전적 기부금액 및 기타 개인적·가구적 특성에 의존하며, 이를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0) $l(\text{여가시간})=24-h(\text{자원봉사시간})$ 이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34의②, 소득세법 시행령 §81의⑤, ⑥ 참조.

$$h_m^* = \beta_0 + \beta_1 w + \beta_2 G + \delta'_I Z_I + \delta'_H Z_H + \epsilon \quad (2)$$

$$LEP = 1[h^* > 0] \quad (3)$$

여기서 h^* 는 자원봉사 참가로부터의 잠재효용(latent utility)이며, 이 잠재효용이 0보다 클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가($LFP = 1$)하게 된다. 만약 잔차항 ϵ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자원봉사시장에 참가하게 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egin{aligned} P(LEP = 1|x) &= P(h_m^* > 0|x) \\ &= P[\epsilon > -(\beta_0 + x\beta)|x] \\ &= 1 - \Phi[-(\beta_0 + x\beta)] \\ &= \Phi(\beta_0 + x\beta) \end{aligned} \quad (4)$$

위 식에서 $\Phi(\cdot)$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이고, x 는 모든 설명변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다. 식 (4)는 프로빗 모델(Probit Model)이라 불리며, 이 확률식을 이용하여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설정하고 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계수들을 추정함으로써(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각 설명변수들이 자원봉사시장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제1단계에서 도출된 Probit Likelihood 함수의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산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즉 자원봉사활동 공급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임금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고, 이상의 방정식으로 구해진 자원봉사활동 공급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시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이와 같은 CES 효용함수로부터 실증분석에 필요한 2개의 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¹²⁾

12) 본 모형은 개인 기부의 동기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함수(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개념상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노동은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지불된 가격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형태의 수요 및 공급함수를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유급노동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자원봉사 노동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Dennis R. Young, 1995)¹⁾. 먼저 자원봉사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력을 관리·감독하거나 보상 및 교육 기회 제공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용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런 것들이다. 더구나 자원봉사인력이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수준이 유급 실무자의 그것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text{자원봉사활동참가} = \alpha Z + \nu \quad (\text{probit model}) \quad (5)$$

$$\ln(\text{자원봉사활동시간}) = \gamma X + \epsilon \quad (6)$$

나. 변수의 설명

상기에서 프로빗 모형으로 자원봉사활동시장 참여 여부에 관한 식을 추정할 때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로 가장 중요한 것은 로그로 변환된 자원봉사의 가격과 개인의 기부금(G_t)이고, 개인적인 특성들(Z_I)과 가구 특성들(Z_H)이 통제변수로 포함된다.¹³⁾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개인적 특성들에는 직업·지역, 가구 특성으로는 결혼 유무 등이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로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 지역으로 더미변수 처리), 교육연수, 직업(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더미변수 처리¹⁴⁾)을 사용하였다.¹⁵⁾

피설명변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시간(연간 총 자원봉사활동시간의 대수치를 사용하였다)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변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는데 <표 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사용 자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 노동수요가 해당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유급노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시간과 함께 감소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도 봉사 행위를 통해 편익이나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상의 대부분은 특성상 무형이고 비금전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 즉 교육 및 역량개발, 보상, 다른 봉사자와의 연계 강화나 해당 조직의 서비스 이용 등의 경우는 유형적이며 가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CES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한 것이다.

- 13) 시간당 임금은 설명변수에서 제외되었는데, 시간당 임금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김현숙·성명재(2006)와 Lee(2004)의 연구를 참조.
- 14)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선주(2006)의 연구를 참조.
- 15)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소득의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가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 단위이므로 개인소득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 자료는 개인소득이 아니고 가구소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시된 가구소득은 정확한 소득수준이 아니고 구간별 소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소득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구분되어야 좀더 강건한 결과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사용 변수의 기초통계

	여 성	남 성
연령(세)	44.3	42.9
교육연수(년)	12.2	13.2
임금(만원)	788,681	1,947,002
연간 자원봉사시간(시간)	20.6	14.7

료의 여성의 평균연령은 44.3세, 남성의 평균연령은 42.9세로 여성이 높았다. 반면, 교육연수는 여성이 12.2년, 남성이 13.2년으로 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가정할 때, 여성은 고졸, 남성은 대재 정도의 학력임을 알 수 있었다. 평균임금은 여성의 경우 78만 8천 원, 남성은 194만 7천 원으로 여성은 남성 임금의 41%에 해당하는 임금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V. 분석 결과

1.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여성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의 프로빗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연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변수들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육연수와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교육연수가 자원봉사의 참여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참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가확률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표 3〉 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식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 성	남 성
상수항		-3.467869*** (.6781722)	-3.734045*** (.6614728)
교육연수		.0723774*** (.0269728)	.0712071*** (.0227116)
연령		.0710013*** (.0215091)	.0725156*** (.0251424)
연령제곱		- .0006987*** (.0002372)	- .0006748** (.0002771)
지역 크기		.025793 (.0536772)	.0689128 (.0549442)
직업		.0054855 (.0176848)	.3353019*** (.1286629)
표본 수		1003	972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가 많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김태홍 외, 2004).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의 프로빗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연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성의 결과와 같이 교육연수와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의 참가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참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가확률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김태홍 외, 2004).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에 대해 프로빗 추정식으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함수와 자원봉사활동의 공급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도구변수로 연령, 연령제곱, 교육연수를 이용하였다.¹⁶⁾

16) 임금방정식의 경우 모든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ill's ratio의 역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여 임금방정식의 추정에 표본선택의 오류를 고려할

〈표 4〉 성별 자원봉사활동시간에 대한 회귀식

독립변수 \ 종속변수	IV		OLS	
	여 성		남 성	
상수항	-27.70566 (22.06029)	.7136997 (2.919676)	2.246266 (9.558616)	7.780017 (3.019834)
교육연수	.7951182* (.4156752)	-.0535438 (.088875)	-.1437592 (.0982298)	-.1650563** (.0708803)
연령	.6904881 (.4333728)	.0799974** (.0337176)	-.0340242 (.1088529)	.0164316 (.0301633)
연령 제곱	-.0065054 (.0043039)	-.65927* (.3310667)	.0004803 (.0010938)	-.1608338 (.3133594)
log(imputed임금)	-.9074572 (.7147525)	.1644108 (.1769523)	.2571839 (.5602412)	-.0816616 (.1370415)
λ	12.5084* (7.140817)	-.5825943 (.8829666)	-.2874515 (1.473446)	-1.019209 (.888336)
표본 수	1003		972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원봉사활동 공급함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교육연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질임금률의 로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CES 효용함수로부터 도출한 노동공급함수가 슬러츠키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공급시간의 표본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Mill's ratio의 역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공급함수의 추정 결과는 여성의 결과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OLS로 분석한 결과¹⁷⁾ 여

필요를 제시하였다.

17) 본 추정에서는 지역 크기와 직업을 식별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참가 방정식에서 보면 지역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참가와 시간 방정식이 완벽하게 식별되지 않아 표본선택의 문제가 계속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변수 이외의 새로운 식별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생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간차항과 연관성이 없으면서 내생변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소위 도구변수를 발견하여 추정하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프로빗 모델은 비선형함수이므로 어떠한 도구변수를 사용하든지 심지어는 관측되는 변수를 그대로 도구변수로 사용해도 두 번째 식에서의 'identification'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IMR의 비선형성은 프로빗 모델이 가정하는 정규분포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정이 identification의 유일한 조건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자료상의 변수가 한정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단순히 시간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다른 그룹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기에 제기한 문제가 남을 수

성은 연령과 연령의 제곱이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성은 교육연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먼저 상기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성별 연간 자원봉사시간을 시뮬레이션하였다.¹⁸⁾ 여성의 연간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20.6시간이었으나 추정방법으로 계산한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22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간 남성의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14.7시간이었으나 추정방법으로 계산한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15.2시간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성의 연간 자원봉사활동시간과 비교할 때 약 6~7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간 자원봉사활동시간의 추정값

	변수	평균(Mean)	표(Std. Dev.)	최솟값(Min)	최댓값(Max)
여성	자원봉사시간의 추정치	22.68215	21.6799	-6.046686	263.4288
	자원봉사시간	20.69376	90.0852	0	720
남성	자원봉사시간의 추정치	15.2658	9.529083	-.610633	103.8397
	자원봉사시간	14.71779	81.07186	0	1188

있다.

- 18) 자원봉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무급노동(unpaid work)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산출량접근법(Output-related Method)과 투입량접근법(Input-related Method)이 있다. 산출량접근법은 자원봉사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투입량접근법은 노동시간에 가치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산출량접근법은 자원봉사조직의 대부분이 그들이 생산한 산출물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가 있어도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입량접근법에는 종합적 대체법,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자원봉사자가 무급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시장임금을 가치평가에 적용한다. 자원봉사의 기회비용은 시간배분모델 내에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기회비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하였다(김태홍 외,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방법도 투입량접근법의 기회비용법의 하나로서 그동안의 연구를 발전시킨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상기의 추정된 자원봉사시간과 자원봉사자 수, 추정된 시장임금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기에서 자원봉사시간과 시장임금은 추정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원봉사 행위자 수는 2008년 한국인의 자원봉사시간 원 자료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에 통계청의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에서 20세 이상 인구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간 경제적 가치는 자원봉사 행위자의 총 자원봉사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것에 365일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때 월평균 자원봉사활동시간의 추정치는 여성의 경우 22시간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15시간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추정값은 여성은 56만 5천, 남성은 191만 3천 원으로 남성이 약 3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 20세 이상 자원봉사인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37,801억 원이다. 20세 이상 자원봉사인구 중 남성의 경제적 가치는 25,304억 원으로 여성의 11,497억 원보다 13,807억 원 많았다(표 6 참조). 자원봉사 참여 비율 및 자원봉사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1인당 임금이 여성이 남자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이 수치는 2008년 GDP의 0.3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2008년 정부 일반계산의 2.1%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사회복지예산의 2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즉,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공공서비스 21%를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 상기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 본문의 추정된 임금(imputed wage)을 바탕으로 실질임금(virtual wage)을 계산한 후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를 프로비트(probit)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추정한 것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시간은 먼저 1단계에서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노동공급)의 가능성에 대한 Probit Likelihood 함수를 도출한 후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산하였다. 이 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공급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임금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고, 이상의 방정식으로 구해진 자원봉사활동함수(노동공급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시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추정된 임금(imputed wage)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나 주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추정가치 규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표 6〉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 2008

		인구수(A)	자원 봉사자수 (B)	자원 봉사자 비율 (C)	1인당 월 자원 봉사시간 (D) (추정치)	1인당 월평균 임금 (E) (추정치)	1인당 시간당 임금 (F)	1인당 연간 자원봉사 경제적 가치	전체 자원봉사의 연간 경제적 가치
단위		(명)	(명)	(%)	(시간)	(원)	(원)	(원)	(억원)
20세 이상 성인	여성	17,823,358	1,800,159	10.1	22.6	565,362	2,355	638,676	11,497
	남성	17,131,425	1,696,011	9.9	15.6	1,913,005	7,970	1,491,984	25,304
전체		34,954,783	3,496,170	20.0	-	-	-	2,130,660	37,801

자료: 인구 수(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통계청), 자원봉사자 수: A*C, 자원봉사자 비율: 「2008년 한국인의 자원봉사」의 원 자료를 통해 계산한 비율을 사용, 1인당 자원봉사시간: 추정치를 사용, 1인당 월평균 임금, 1인당 시간당 임금: 추정치를 사용.

VI. 결 론

이상에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부분 여성들의 노동력을 평가절하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특히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의 돌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가사노동을 사회로 확대하여 성편의적인 노동 개념을 고착화시키고 여성들의 노동을 무보수의 순환노동으로 전환시켜 사회적 평가절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 연구들이었으며, 최근에 들어와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기 및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인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부분 여성들의 노동을 평가절하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논의를 넘어서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하고자 하였다. 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이 많은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한 구성의 규모를 공식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즉, 현존하는 노동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부분의 실제 노동력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경제적 가치 및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 등 관련 정책 형성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자원봉사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취약한 부문을 민간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자원봉사자가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 임금 감소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 연령, 교육연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교육연수가 자원봉사의 참가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참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가확률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평균 자원봉사활동시간의 추정치는 여성의 경우 22시간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5시간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추정값은 여성은 56만 5천 원, 남성은 191만 3천 원으로 남성이 약 3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세 이상 자원봉사인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37,8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20세 이상 자원봉사 인구 중 남성의 경제적 가치는 25,304억 원으로 여성의 11,497억 원보다 13,807억 원 많았다. 자원봉사 참여 비율 및 자원봉사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1인당 임금이 남자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 실증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분석방법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함수 추정에 있어 수요 측 제약요인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²⁰⁾ 노동공급 조정이 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 실태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서로 표본이 다르다.²¹⁾ 이러한 이유로 분석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차후보다 더 정교한 추정방법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제약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를 추정해 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공헌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존하는 측정되어지지 않는 노동력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분석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부 지원의 확대·축소 등과 관련된 정책을 논할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시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요 측 요인의 고려 및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방안 등의 포함 여부에 따른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정 외. 「한국여성의 자원봉사 및 기부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NGO에서의 효과적인 여성 자원봉사활동가 및 후원자 개발, 관리를 위하여」. 한국비영리학회, 2002.
- 김태홍 외. 「여가와 사회자본 및 인적자본투자 간의 시간배분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2005.
- 박태규 외. 「자원봉사의 경제적 분석」. 『한국비영리학회지』 3 (1) (2004): 115~143.
- 박태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자료」. 행정안전부, 2008.

20) Bargain, Caliendo, Haan and Orsini(2006)에 따르면 노동공급함수 추정에 수요 측 제약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의 노동공급 효과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21) 실태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서로 표본 구성이 다를 경우 실태조사 자료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몇 개의 층위별로 공급시간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 등을 곱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 박차상.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확보방안 조사연구」. 제주 한라대학, 2001.
- 박중삼.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5.
- 박 훈 · 이상신.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 아름다운 북.
(사)불런티어21. 『한국인의 자원봉사 실태: 각년도 원자료 및 분석보고서』. 1999,
2002, 2005, 2008.
- 손원의 · 박태규. 『한국의 민간 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오명복.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계명대학교, 2002.
- 이강현 외. 「자원봉사 조직 및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인정보상 시행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학회, 2006.
- 조동훈. 「내생성과 표본선택편의의 차이?」.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조선주. 「개인의 자원봉사 행위에 관한 분석」. 한국비영리학회, 2006.
- 조선주 외.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Andreoni, J.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1989): 1447~1458.
- _____.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Economic Journal* 100 (1990): 464~477.
- Bargain, Caliendo, Haan and Orsini. "Making Work Pay' in a Rationed Labor Market." *IZA Discussion Paper*, No. 2033, 2006.
- Brown, E., and H. Lankford. "Gifts of Money and Gifts of Time: Estimating the Effects of Tax Prices and Available Ti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92.
- Duncan, Brian.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2) (1999): 213~242.
- Freeman, R. B. "Working for Notio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1) (1997): 140~166.

ILO.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ILO, 2009.

Kaminer, Wendy. *Women Volunteering: The Pleasure, Pain, and Politics of Unpaid Work from 1830 to the Present*, Anchor Press, 1984.

MacRae, H. M. "Women and Caring: Constructing Self Through Others." *Journal of Women and Aging* (1995): 687~694.

Female Volunteer Work and its Economic Values

Sun-joo Cho

Despite the fact that volunteer work has an enormous contribution to improving one's life quality, mere efforts have been observed in measuring its economic values. So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fluence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measure its economic values.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volunteer activities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voluntee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performed volunteer service valued at 3,495 billion won, among which men's contribution amounted to 2,392 billion won, 1,293 billion higher than women's 1,103 billion won.

Accordingly, relevant policies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the values of female volunteer activities are measured and acknowledged an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society, so that female volunteer activities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primary channel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Keywords : female volunteer work,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s